

♡1 힘에의 의지로 움직이는 나

니체(1844~1900)는 진리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관점’과 ‘해석’의 다양한 세계를 연다. “‘직접적인 확실성’에 대한 믿음은 우리 철학자들을 명예롭게 만드는 하나의 도덕적 순박함이다. 그러나—우리는 이제 결코 ‘단순히 도덕적인’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나’라는 것이 자명하고 그 자아에 따라 확실하게 생각하면서 도덕을 지키며 산다고 믿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사유한다”라는 명제 속에 표현된 과정을 분석해가면, 나는 그 명제가 논증하기 어려운, 아마 불가능한 일련의 대담한 주장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미 ‘나’와 ‘사유’가, 그리고 사유가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다고 전제하는데, ‘사유를 하지 않는 나’와 ‘사유를 하는 나’를 ‘비교하는 나’가 여럿 있는 셈이다. ‘나’가 모든 걸 직접 다 주관하지 않는다. 그런 ‘나’는 언어 속에서만 존재하지 실재하지 않는다. 생각은 ‘나’가 통제하기 어렵다.

즉 하나의 사상은 ‘그 사상’이 원할 때 오는 것이지, ‘내’가 원할 때 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 ‘나’는 술어 ‘생각한다’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그 무엇이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그 무엇’이 바로 저 오래되고 유명한 ‘나’라고 한다면, 부드럽게 말한다고 해도, 단지 하나의 가정일 뿐이고, 주장일 뿐, 특히 ‘직접적인 확실성’은 아닌 것이다. 결국 이미 이러한 ‘그 무엇이 생각한다’는 것으로 너무나 충분하다: 이미 이러한 ‘그 무엇’에는 사유 과정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 함축되어 있으며, 과정 그 자체에 속한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나’를 당연히 믿었지만 “‘나’란 사유 자체에 의해 만들어진 종합에 불과한 것”이라는 통찰이 퍼져간다. 그래서 니체는 이렇게 쓴다. “어느 누구도 쉽게 그 궁극적 의도를 간파할 수 없는 표면에 나타난 영혼과 배후에 숨겨진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그 누구의 발도 마지막까지 내달릴 수 없는 전경과 배경을 가지고 있다.”

니체는 의식으로서 인간을 정의하지 않고, 모든 것의 기본에는 “힘에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면서 세상을 힘으로서 파악한다. “생명 그 자체는 힘에의 의지이다.” 생명은 힘을 발산하고자 한다. 그런데 내 안엔 수많은 힘과 의지들이 들끓는다. 모든 의지작용에는 감정과 사고, 정서로 구성된다. 감정과 느낌이 의지를 구성하며, 또한 “모든 의지의 행위 속에는 하나의 지배하는 사상이 있다.” 세 번째로 명령의 정서가 있다. “의지하는 인간은—자기 안에 있는 복종하거나 복종한다고 믿는 그 무엇에 명령을 내린다.” 나는 특정한 힘과 의지를 ‘나’라고 믿지만 의지나 영혼이라 불리는 수많은 힘과 의지들이 우리 안에서 소용돌이친다. “우리의 몸은 많은 영혼의 집합체일 뿐이다”. 현재 힘이 센 도덕의 나는 내 ‘전체’가 아니다.

잘 형성되고 행복한 모든 사회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이 여기에서도 일어난다. 즉 지배 계급은 자신과 사회 공동체의 성취를 동일시하는 것이다. 모든 의지작용에서 중요한 문제는 이미 말한 바 있듯이 오로지 많은 영혼의 집합체를 바탕으로 한 명령과 복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는 의지 그 자체도 이미 도덕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즉 도덕이란 ‘생명’의 현상에 발생하는 지배 관계에 대한 학설로 이해된다.

♡2 길들여진 노예

그동안 우리는 길들여진 채 살았다. “부모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식을 그들과 닮은 존재로 만든다.—그들은 이것을 ‘교육’이라 부른다—, 자식을 하나의 소유물을 낳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마음 깊은 곳에서 의심을 품는 어머니는 없다. 자식을 자신의 관념이나 가치평가에 복종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반박하는 아버지는 없다.” 부모뿐 아니라 온갖 권력이 내게 침투해오고 영향을 미치면서 지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는 복종하도록 훈련받아 왔다. 내가 나를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어느 시대든지 무리를 이룬 인간 집단 역시 존재했으며(씨족 연합, 공동체, 부족, 민족, 국가, 교회), 언제나 소수의 명령하는 자에 비해 복종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다.—즉 복종이란 지금까지 인간들 사이에서 가장 잘 그리고 오랫동안 훈련되고 훈육되어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제 당연히 각 개인은 평균적으로 일종의 형식적인 양심으로, “너는 어떤 것을 무조건 해야만 하고, 또 어떤 것을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는 것, 즉 간단히 말하자면 “너는 해야만 한다”고 명령하는 그러한 욕구를 타고 났다고 전제해도 좋을 것이다.

종교는 “지배자와 예속된 자를 공동으로 묶는 유대의 끈”으로서 약자들을 명령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장치다. 종교에 도취된 약자들은 저항하지 않고 지배당하기를 갈구한다. 자신을 견딜 수 없는 사람들, 고통과 싸울 용기가 없는 사람들에게 종교는 약간의 위안을 준다.

종교란 자신의 상황과 천성에 무한한 만족과 다양한 마음의 평화, 복종의 고귀함과 자신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겪는 행복과 고통 이상을, 모든 일상이나 총체적인 영혼의 천박함이나 전체적인 반(反)동물적인 빈곤함을 변용하고 미화하며 정당화하는 무엇을 부여한다. 종교 그리고 삶에 대한 종교의 중요성은 이와 같이 항상 고통받는 인간들에게 태양빛을 주며, 그들 자신으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전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아무리 종교를 믿고 도덕을 따르려고 해도 내 삶은 분열되어 있다. “우리의 가장 강한 충동, 우리 안에 있는 폭군에게는 우리의 이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도 굴복하게 된다.” 종교와 도덕은 인간의 자연스런 충동마저 더럽다고 비난한다. “그리스도교는 에로스에 독을 타 먹였다.—그로 인해 에로스는 죽지는 않았지만, 타락해 부도덕해졌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성욕과 억압 사이에서 분열된다. 위선의 인생을 살면서 마치 고결한 척 연기하기보다는 니체는 기존의 나를 의심하고 사회의 속박에서 벗어나라고 자극한다. “이의, 탈선, 즐거운 불신, 조롱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건강의 징조이다: 무조건적인 것은 모두 병리학의 대상이 된다.” 길들여진 인간일수록 무지하다. “고상하고 준엄한 품위와 자기 책임감은 거의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며 불신을 일깨우고, ‘유순한 인간’이, 더욱 ‘우둔한 인간’이 존경을 받게 된다.” 그래서 남들의 시선과 사회의 제약에 얽매인 채 살게 된다. “그것은 허영심 있는 사람의 피 속에 있는 ‘노예’이며, 자기 자신에 대해 좋은 평판을 유도하려는 노예의 교활함의 잔재이다.” 허영심의 노예들은 자신이 잘 하는 것이 대단한 거라고 착각한다. “우리가 가장 잘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인정되기를 우리의 허영심은 바란다. 많은 도덕의 기원에 관하여.”

우리들은 스스로 책임지는 고상한 인간을 꺼려한다. “사람들이 여전히 경시하고 있는 한 미워하지 않으며, 동등하거나 더 높다고 평가할 때에야 미워한다.” 그만큼 미성숙한 우리들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자신을 길들인 도덕과 진리라는 것들을 비판하고 투쟁할 수 있을 때 강한 인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자신을 길들이고 세뇌시킨 적들과 싸울 때 조심해야 한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자신이 이 과정에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만일 네가 오랫동안 심연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심연도 네 안으로 들어가 너를 들여다본다.”

♡3 내 삶의 입법자

니체는 인간의 정신을 ‘위’에 비유한다. 물론 정신이 다 소화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먹기를 거부할 수도 있다. 정신은 낯선 것과 마주치고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키면서 힘이 커지기도 하지만 마음의 창문을 닫고 방어하면서 “어둠과 폐쇄된 지평에 대해 만족”하기도 한다. 내 정신은 크게 두 갈래의 방향이 있는 셈이다. 기존의 상태를 고수하면서 무지하게 딱딱해지거나 바깥의 충격을 소화하면서 팔팔하게 부드러워지거나. 그러므로 성장을 위해서 고통을 피하지만 말고 새로운 경험을 시도해야 한다. 위험과 도전이 인간을 향상시킨다. 니체는 무리를 지으려 하지 말고 고독한 고통과 위험한 도전을 선택하라고 선동한다. 때때로 사람들로 부터 거리를 두고 자신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물론 독립한다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다. “독립한다는 것은 극소수 사람의 문제이다: —그것은 강자의 특권이다.” 고독 속에서 분투할 때 아무도 그를 동정할 수 없다. 되돌아갈 수조차 없다. 그래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삶의 주인들은 용기를 더 내고 더 강해진다. 어려움을 딛고 자유의 정신이 되면 삶은 훨씬 즐거워지니 니체는 지속하라고 외친다. “높은 감각의 강함이 아니라, 지속되는 것이 높은 인간을 만든다.” 위대함은 “의지의 강함과 준엄함, 오랫동안 결의할 수 있는 능력”이다.

도덕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던 타성에서 벗어나 스스로 책임지고 행위하고자 할 때 위대한 시기가 찾아온다. “우리 인생의 위대한 시기는 우리가 우리의 악을 우리의 최선이라고 고쳐 부를 용기를 얻는 그 때이다.” 주어진 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 자유로운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다. “그의 적은 언제나 오늘의 이상이었다.” 자신의 법을 만들고 삶을 창조하라!

진정한 철학자는 명령하는 자이자 입법자이다: 그들은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라고 말한다. 그들은 우선 인간이 어디로 가야하는가와 어떤 목적을 가져야 하는가를 규정하며, 이때 모든 철학적 노동자와 과거를 극복한 모든 자의 준비 작업을 마음대로 처리한다.—그들은 창조적인 손으로 미래를 붙잡는다. 이때 존재하는 것, 존재했던 것, 이 모든 것은 그들에게는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며 해머가 된다. 그들의 ‘인식’은 창조이며, 그들의 창조는 하나의 입법이며, 그들의 진리를 향한 의지는—**힘에의 의지**이다.

기존의 도덕에서 벗어나 자신의 법을 세우는 건 ‘이기주의’로서 사는 것이라고 니체는 단언한다. “순진한 사람의 귀를 불쾌하게 만들지도 모를 위험을 무릅쓰고, 이기주의란 고귀한 영혼의 본질에 속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내가 말하는 이기주의란 “우리는 존재한다”처럼 존재에 대해서 다른 존재는 자연히 종속되지 않으면 안 되고 희생되어야 한다는 저 확고한 신념이다.” 니체에 따르면 강자는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판단하고 행위한다. 그래서 나 스스로 가치를 세우고 그 가치에 따라 산다. 그래서 이기주의다. 그렇다고 남들을 무시하기만 하는 건 아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에 따라 세상을 사랑하고 존중한다.

고귀한 부류의 인간은 스스로를 가치를 결정하는 자라고 느낀다. 그에게는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그는 “나에게 해로운 것은 그 자체로 해로운 것이다”라고 판단한다. 그는 대체로 자신을 사물에 처음으로 영예를 부여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 그는 가치를 창조하는 자이다. 그는 자신의 입장에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존중한다: 이러한 도덕은 자기 예찬이다. 그 전경에는 충만한 감정과 넘쳐흐르고자 하는 힘의 느낌, 고도로 긴장된 행복과 베풀어주고 싶어하는 부유함의 의식이 있다:—고귀한 인간 역시 불행한 사람을 돕지만, 그러나 거의 동정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넘치는 힘이 낳은 충동에서 돕는다. 고귀한 인간은 자기 안에 있는 강자를 존경하며, 또한 자기 자신을 지배할 힘이 있는 자, 말하고 침묵하는 법을 아는 자, 기꺼이 자신에 대해 준엄하고 엄격하며 모든 준엄하고 엄격한 것에 경의를 표하는 자를 존경한다.

♡4 니체가 얘기하는 여성과 사랑

인간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지만 “우리의 근거에는, 훨씬 ‘그 밑바닥에는’ 물론 가르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으며 정신적 숙명의 화강암이 있고 미리 결정되고 선별된 물음에 대한 미리 결정된 결단과 대답의 화강암이 있다. 중요한 문제가 대두될 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불변적인 말을 하는 것이다.” 우리 안엔 나이자 내 문제로서 신념, 내 삶을 이끌고 가는 이정표로서 신념이 있다. 자신만의 진리일 뿐이라면서 여성과 사랑에 대한 글을 니체는 쓴다. “사랑으로 행해지는 것은 항상 선악의 저편에서 일어난다.” 사랑의 욕망은 억누른다고 해서 억눌러지지 않는다. “정동을 극복하는 의지는 결국 다른 또 하나 또는 몇 개의 다른 정동의 의지일 뿐이다.” 정동의 강도와 지속은 남녀가 조금 다르다. “똑같은 열정이라도 남자와 여자는 템포가 다르다: 그 때문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오해가 그치지 않는다.” 인간 안엔 여러 색깔과 욕망들이 있는데 우린 그 사람의 고귀함만 보고 착각과 오해를 하게 된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고귀하면서 숨어 있는 성질을—그가 지닌 희귀한 것, 예외적인 것을 밖으로 드러낸다: 이런 점에서 사랑은 그가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에 대해 쉽게 잘못 생각하게 한다.” 자신의 환상을 투사한 상대를 우린 사랑한다. 상대의 ‘광기’를 우린 거부한다.

남녀는 서로 상대를 속인다: 그것은 그들이 근본적으로 오직 자기 자신만을 (또는 듣기 좋게 표현한다면, 자신의 이상을)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은 여성이 온화하기를 바란다.—그러나 여성이야말로 온화한 결모습을 연습하려고 해도 고양이 같아서 본질적으로 온화하지 못하다.

니체는 여성의 생산성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새로운 생산, 변화, 창조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둔다. “한 여성이 학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녀에게 성적인 결함이 있는 게 보통이다. 불임이라는 것은 이미 어떤 유의 남성적 취향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 남성은, 실례되는 말이지만, ‘불임의 동물’이다.” 그밖에 여성에 대한 잠언들. “여성은 매혹하는 것을 잊어버림에 따라 미움을 배운다.” “여성 스스로는 모든 개인적인 허영심의 배후에 항상 그들의 비개인적인 경멸감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여성’ 자신에 대해.” “성애에 관한 엄청난 기대와 이러한 기대 속에서의 부끄러움이 처음부터 여성의 모든 관점을 망쳐놓는다.” “복수하거나 사랑할 때 여성은 남성보다 야만적이다.” “옛날 플로렌스 소설에서, 그 외에도 인생에서 나오는 것: 좋은 여자도 나쁜 여자도 채찍을 원한다.”